

# 문화학으로서의 독일학

## -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사례

김누리(서울대 강사)

독일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연구소 Institut für kulturwissenschaftliche Deutschlandstudien>는 문화학적 시각에서 독일학에 접근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에 세워진 대학부설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활동은 지역학 Area Studies으로서의 독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몇가지 눈여겨볼만한 대목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지역학하면 곧 장 경제·통상·정치·외교 등 주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도에서 나온 사회학적 접근만을 떠올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이 연구소는 지역학 연구의 인문학적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연구소가 발행한 활동보고서<sup>1)</sup>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소의 성격과 연구테마를 살펴보고, 이 연구소 활동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인 '문화학'의 발전상황을 간략하게 개관해보고자 한다.

### 1.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성격과 의미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는 독일의 문학, 문화, 정치에 대한 연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1945년 이후 동서독이 거처온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구 테마는 동독의 문화과 문화, 문단지식인의 역할, 나아가 40여 년간의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에서 형성된 문화적 차이의 문제 등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적인 연구 이외에 통일 이후 양독사회가 겪고 있는 소통장애와 기능장애를 다루는, 시의성이 강한 '현재적' 연구도 주요테마에 속한다.

1) 이 글은 주로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가 1992, 1994, 1995, 1996년에 발행한 활동보고서 Beschreibung und Jahresbericht. Institut für kulturwissenschaftliche Deutschlandstudien, Universität Bremen을 참고하고 있다.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는 - 물론 문화적, 문예학적 측면이 중요시 되긴 하지만 - 광의의 문화개념에 기반을 두면서 학제간 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연구프로젝트에 있어서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이 폭넓게 원용되고, 노동문화, 여가문화, 정치문화, 일상문화, 그룹문화, 시민운동, 비공식그룹, 공공영역, 의식구조 등을 다루는 문화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장려·지원된다. 그 밖에 19, 20세기 독일유태인의 문화사도 중요 연구테마에 포함된다.

독일의 여타 대학과 연구소에서 행해진 독일학 연구실태와 비교해볼 때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연구활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넓은 의미에서 학제적인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학은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시대사에 치우쳐 있었다.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와 같이 문화학과 사회학의 유기적 소통이라는 원칙 하에서 출발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 튀빙겐의 <경험적 문화학>이나 보쿰의 <독일학 연구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 단지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독일연구지원협회 DFG>가 “동독통합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1991년의 중심테마로 제시한 것은 학제적 독일학연구가 시대의 요청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은 미국(과 그 외 몇몇 나라)의 대학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서는 독일어와 독일문학만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독일지역연구 German Area Studies>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와 연구에 있어 중점을 문화학적, 학제적인 측면에 두면서 정치·사회·경제·법률적인 측면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전경향을 볼 때,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연구활동은 독일연구의 국제적인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며, 현재의 독일학 연구의 지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는 초기 단계에선 구동독의 제도권 내외의 문화 및 문학의 기능과 의미를 탐구하는 문화학적 테마를 중심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때 광의의 문화 개념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여 문화학적 연구를 학제적 의미에서 인접학문과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DFG의 연구 프로젝트인 “독일문학에 나타난 기술승배의 연속성”(1991년 초), “동독의 인터뷰문학”(1992년 3월)에서 그대로 견지되었다. 이를 넘

어 “동독 시민운동의 성립, 발전과 그 의미”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사회학적, 정치학적 연구 영역이 제2의 독자적인 연구분야로 자리잡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연구단초와 연구방법의 도움으로 동독의 재야권을 역사적, 발생사적으로 분석하고, 동독재야권의 발전을 그 변화과정 속에서 탐구하고, 이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시민사회’ 개념과 관련지어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연구의 성과들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2.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연구테마

1992년 이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구테마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992년

- 동독에서의 일상문화와 일상의식 (의식구조 Mentalität 비교연구)
- 재야운동과 저항운동의 성립과 그 의미
- 독일어권의 과학담론과 기술담론
- 동독지식인의 기능과 자기인식
- 문화/예술의 규범화과정의 맥락에서 본 ‘검열’
- 동독문학에 나타난 미학이론의 현대화와 텍스트상호성
- 1945년 이후 독일의 문단 지식인들
- 독일통일을 전후한 시민운동과 정치문화의 발전
- 1789년과 1848년 사이의 독일어권 통속문학에 나타난 유대인상

### \* 1994년

- 히틀러-스탈린 시대의 기술에 대한 담론
- 1800년에서 현재까지의 유대 문화와 정체성추구
- 게셀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 사이에서, 통일이후 독일의 정치문화
- 독일의 우익 파퓰리즘과 좌익 파퓰리즘

### \* 1995/96년

- 독일에 있어서의 공동체 담론과 정치협오 Antipolitik의 전통
- PDS의 해부를 위한 지역연구
- 동서독 청소년의 차이점과 공통점

- 독일어권 젊은 작가 세대의 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현실관
-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에서의 문학적, 문화적 소통에 대하여

이상의 연구 테마에서 주목되는 것은 광의의 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연계시킨 새로운 테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학>을 '문화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해하면 학제간의 소통과 공동작업이 상당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3. 1945년 이후 문화학의 발전과정<sup>2)</sup>

1933년 나치의 집권과 함께 <위부르크 문화학 도서관>이 런던으로 이전함에 따라 위축되었던 독일의 문화학은 지난 20년 전부터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있다. 전후 초기에는 문화학적 전통이 여전히 보수적인 민속학 세미나의 형태로 지속되었지만, 60년대와 70년대에 와서는 서독의 여러 대학이 새로이 비판적인 문화학을 정초하고, 이를 60년대 독일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룩한 사회학 분야와 연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튀빙엔 대학의 <경험적 문화학 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문화학을 경험과학적 방법을 위주로 한 문제중심적 사회학이라고 정의하고, 문화학은 비판적 사회분석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본보기를 따르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학적 단초들은 보수적이고 낭만적인 민속학의 전통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분야의 새로운 방향정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해가 감에 따라 문화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종족심리분석, 심리사, 사회문화연구, 의식구조연구, 언론학, 사회학적 전기연구 등의 분야가 문화학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연구의 대상 뿐 아니라 연구방법론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졌다. 여러 대학이 경험적 방법에 정향됨에 따라 풍속이론적 민속학과 차이를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경험적 사회연구와 사회사연구의 방법들에 점차 문호를 열어놓게 되

2) 문화학의 발전과정을 다룬 이 부분은 1994년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간사로 있는 Lothar Probst의 논문 *Neuorientierungen und Paradigmenwechsel. Zur Entwicklung der Kulturwissenschaften nach 1945*를 주로 참고하였음.

었다.

오늘날 독일에서 문화학 연구의 스펙트럼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이는 개별 연구소와 개설 학과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튀빙엔의 <경험적 문화학 연구소>
- 마부르크 대학의 <유럽 인종학과 문화 연구소>
- 라이프찌히 대학의 <문화학 연구소>
- 힐데스하임의 <문화교육학 세미나>
-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문화인류학과 유럽 인종학 연구소>

여기서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문화학 분야나 학과가 여전히 '민속학 세미나'나 '민속학 연구소'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긴 해도 그동안 본래의 전통적인 민속학적 전범들은 대부분 설 자리를 잃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개설된 강의나 세미나의 제목만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1992년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 "양차 세계대전 동안의 시골 청년들" (아우구스부르크 대학)
- "40년대와 50년대 동베를린 남성들의 일상" (훔볼트 대학)
- "19, 20세기의 죽음문화" (본 대학)
- "1992년 콜롬부스 수용사례" (프랑크푸르트 대학)
- "문화연구에 있어서의 정신분석" (괴팅엔 대학)
- "문화 속의 폭력" (팻사우 대학)
- "생존기술로서의 문화. '강제수용소'의 사례" (레겐스부르크 대학)

한편 문화학 연구에 있어 경험적, 일상적 테마에 비해 이론적, 철학적 테마가 훨씬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 세미나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문화이론과 태도연구"
- "시간과 문화"
- "문화, 종족, 주체"
- "주체란 무엇인가?"
- "인간과 사물 - 상호관계에의 접근"

## - “문화개념과 문화이론적 단초의 비교”

이처럼 문화학적 거대이론에 대한 강의 개설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문화학 관련 강의에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나 유형을 개관해 보면 고전적인 문화학적 테마가 현대 산업사회의 제문제와 그 미학적 상징들 쪽으로 전이해가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상, 여행, 성, 육체, 음식, 이주 등과 같은 주제의 부상이다.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독일 대학에서 개설된 강의들은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바빌론의 창녀. 대도시와 근대”
- “대도시의 민속학. 담장의 그늘에 갇힌 일상”
- “고상한 사람들. 일상에 나타나는 권위적 태도”
- “TV보기와 일상생활”
- “달콤한 음식의 문화사”
- “식생활과 문화, 문화로서의 식생활”
- “이주의 이론과 이주의 운명”
-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 “남성학”
- “영화에 나타난 남녀관계”
- “사회적 정의의 이론에 나타난 가정과 성”
- “육체성. 자연과 관습 사이에서”
- “여행으로서의 인생”
- “여행의 문화사”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부>는 이러한 발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과정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두가지 단초를 서로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하나는 <튀빙겐 연구소>의 정신과학적, 이론적 단초이고, 다른 하나는 힐데스하임 대학의 문화교육학의 문화실천에 중점을 둔 단초이다. 원리상 상이한 두 단초의 결합은 오늘날까지도 연구과정의 네가지 기본요소 (문화이론, 문화사, 경험적 문화연구, 문화활동)과 일곱개의 전문분야 (일상문화 및 대중문화, 문학, 언론매체, 문화인류학,

여성학적 문화연구, 놀이/연극, 예술/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문화학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는 학사규정 Studienordnung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 “문화학은 전통적인 인문학 Geisteswissenschaft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인문학과는 다르다.
- 문화학은 문화 현상들의 연계성이 깨져있는 전통적인 학과들과는 달리, 문화현상들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그 점에서 학제적이다.
  - 문화학은 우선적으로 일상의 문화에, 특히 그 존재가 현재 위협당하고 있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는다.
  - 문화학은 현재 개별학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이론적 단초들에 접근하여 이들을 상호 연계시키고자 한다.
  - 문화학은 문화적 매개의 새로운 분야 및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학은 분명한 소속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학은 분명한 소재영역에 의해 규정된 학과가 아니다. 명확한 대상영역 보다는, 매우 상이한 대상에 대한 사례 학습, 학제간의 연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방식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 실천적 방법론들)이 문화학의 연구를 더 정확하게 성격지운다.”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방법은 그 폭이 매우 넓은데,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학 자체가 비교적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개설 강의들은 문화학적 테마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 “종교인종학 개론”
- “죽음의 像. 서구 문화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
- “새로운 매체와 문화 발전”
-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방법”
- “종족학과 인간 육체의 문화사”
- “근대초기의 마녀상”
- “멜랑콜리. 천재의 병에서 새로운 유행감정으로”

- "제도로서의 예술"
- "문화후원"

이처럼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는 다채로운 문화학적 테마를 학제간의 연계물 통해, 특히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원용하면서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 발제에 대한 토론

**이정희:** 발제자로부터 브레멘 대학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의 여러 가지 활동 및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독일학의 연구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브레멘 대학 독일학 연구소의 프로젝트나 활동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그에 대해 질문을 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프로젝트나 주제를 독일학 강의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관:** 우선 이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학부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독립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요?

**김누리:** 구성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독문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한국에도 오신 Wolfgang Emmerich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고 그 외에도 두 분의 선생님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비교적 젊은 층의 강사들입니다. 그리고 소속과 관련해서 이 연구소는 독문과에 속해 있지는 않고 대학 부설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태호:** 그러면 그곳에선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도 하나의 독립된 과로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김누리:** 독립된 과는 아닙니다.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황윤석:**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각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모여서 해나가는 모양이군요. 발제문에 소개된 테마들도 대부분 연구 테마들이지 강의 테마들이 아닌데요.

김누리: 강의 테마들도 있습니다.

황윤석: 글썽 그렇기는 해도 우리 커리큘럼에 반영할 만한 성질의 것들이 거의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한 두 가지 정도, 예컨대 '일상 문화와 일상 의식'과 같은 테마라면 우리가 다루어볼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말입니다.

안삼환: 제가 보기에 연구결과 정도는 우리가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모범으로 삼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황윤석: 근본적으로 학제가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고 또한 연구방법 자체가 대개 사회학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안삼환: 발제자께서 지난 번 모임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

김누리: 전체적으로 보아 몇 개의 테마 정도는 우리가 당장 강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 번 정상수 선생이 발표한 사회학 일변도의 지역학 연구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브레멘 대학 연구소의 경우도 저희의 방향과는 역시 상당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길웅: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제문의 목록에 보면 예컨대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에서 1992년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에 개설되었다고 되어 있는 '양차 세계대전 동안의 시골 청년들'이라는 강의와 같은 경우, 이 대학에서는 물론 이 테마에 대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었을 테지만, 우리 독문과에서도 이와 똑같은 강의는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황윤석: 글썽 그것도 강의로서는 가능한데 커리큘럼 안으로 수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커리큘럼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독일에서의 일상 문화와 일상 의식' 또는 '독일어권 통속문학' 정도이고, 그외에는 대부분 한 학기 강의 정도로 끝날 만한 것들이지 지속성을 갖는 강좌로서 커리큘럼 안에 편성되기는 곤란하리라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테마들이 사회학과를 비롯한 사회대학 쪽에서 다룰 만한 성질의 것이고 우리가 다루기에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우근:** 그러나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은 대세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력적인 제목의 강의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임종대:** 예컨대 유대인 문화사 쪽의 테마들은 우리도 한번 강의 제목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쪽 강의로도 가능하고 어학 쪽 강의로도 가능한데, 이를테면 '유대인 독일어로서의 이디쉬 Jiddisch'라든가 '독문학과 동구 유대인문화 Ostjudentum'와 같은 제목의 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쪽 테마들은 매우 인기있고 늘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던 것들인데,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누리:** 제가 목록으로 소개한 테마들 가운데 상당수, 예컨대 '일상에 나타난 권위의 문제'라든가 '대도시의 민속학 - 담장의 그늘에 갇힌 일상'과 같은 테마들은 사실 학문적으로 거의 조명을 받아보지 못한 문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문적으로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테마들인 셈이지요. 브레멘 대학의 경우는 이처럼 구체적인 제목으로 강의를 개설한 다음 대개 사회학과 교수,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문학쪽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수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각지대가 학문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삼환:** 직접적으로 모방할 수는 없지만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문화 속의 폭력'과 같은 테마를 예로 든다면, 그런 내용의 텍스트를 독일어 수업시간에 직접 수강생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독일어 교육에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귀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과 자국 문화를 연구하는 그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학을 옮겨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위상, 즉 그곳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대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브레멘 대학의 경우는 역시 참조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흥배:** 우리의 상황에 내용적으로 직접 대입될 수는 없지만 브레멘 대학

의 모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조할 만한 점은 문제 중심 내지 작은 테마 중심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학생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같구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영문학계에서도 4월초 영문과 소장학자들이 모여 기존의 수업 방식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문학의 경우도 학과 규모는 거대화되었지만 정작 영문학 강의는 위축되고 있어서 문제 자체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문화학 내지는 문화이론 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브레멘 대학 연구소 식으로 일상사 내지는 의식구조 *Mentalität*에 관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강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학의 역사 자체는 상당히 오래 된 것이어서 18, 19세기 근대의 탄생기 때부터 인문학 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20세기에 와서 단절을 겪고 이후 현재까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 장르 중심의 강의 및 연구 방법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전체 하에 그런 것에 포함이 안 되었던 시각 매체라든가, 일상 문화 내지 대중 문화 쪽의 연구로 직접 나아가자는 주장으로, 말하자면 인문학은 현실 적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영문학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독문학과와 같은 경우엔 예컨대 '독일 고전주의', '독일 표현주의' 등 강좌 자체가 워낙 하드웨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모델들을 참조로 하여 반드시 어떤 구조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러한 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므로, 현재의 틀 안에서도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강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김누리: 제가 다시 브레멘 대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충을 하자면, 그곳에서는 강의들이 본래 과 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한 프로젝트에 심리학, 철학, 문학 등 연관 학문 분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제적 *interdisziplinär*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한 한은 상당히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석: 그런 경우에 학생들의 소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누리: 일단 문화학부 Kulturwissenschaft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요.

황윤석: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인문학부인 셈이군요?

김누리: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다시 독문과, 심리학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점 인정 과정 등의 면에서는 매우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우근: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김누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짧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빌레펠트 대학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구명철: 과의 구분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 구분이 명확하긴 하지만 다른 과의 수업을 폭넓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문과의 강의가 독문과 학생뿐만 아니라 인접학과 학생들에게도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강의가 보통 들, 심지어는 서너 학과에서 동시에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김누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각 과마다 각기 과목들을 개설했을 때 큰 틀에서 어떤 테마가 잡히면 그 테마 아래에서 몇 개의 과들이 일관성있는 어떤 것을 미리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우산'으로서의 프로젝트라고나 할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 그러면 한 프로젝트의 기간은 대개 얼마나 되나요?

김누리: 긴 경우는 한 세 학기 정도하는 것을 보았구요, 대개 두 학기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저희 과에서 독문과 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학 강의를 개설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독일어 해독 능력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말이야 자국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엔 그것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독일에 대한 우리 말 자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은 것도 같고, 학생들이 그것을 다 읽을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우리 나라에서 독문과 이외의 일반 학생들을 위한 독일학 강의 방법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삼환:** 그런 강의를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라야 할 텐데, 우리들 자신이 도대체 학제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학생들한테 매력적인 강좌를 내놓으려면, 예컨대 아까 홍성군 선생의 '독일 시와 가곡'과 같은 강의를 예로 들 때, 특정한 시간대에 있는 개별적인 독문학자 홍성군 선생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강의를 개발해서 명강의의 수준까지 가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음악적인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곡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막연하고... 이처럼 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무엇을 개발한다는 것, 그것은 그 각각의 개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일단 한 두 가지의 프로젝트만이라도 시작을 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연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보안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화:** 독일 김나지움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문제중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쟁과 문학'이라는 테마가 있으면 전쟁을 주제로 다루었던 문학작품의 일부를 발췌해 놓고 작가의 여러 가지 글들도 함께 실어 놓은 다음 다시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 강의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테마를 잡아서 '전후시대의 문학'이라는 제목보다는 이와 같이 문제제기 쪽으로 강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미애:** 현재 독일학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로부터 이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참고 자료같은 것을 받아볼 수 없을까요. 언제 어느 대학에서 우리가 독일학 강의를 맡게 될지도 모르고 그 강의를 맡게 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자료를 찾아야 하고 하는 수고를 던다는 의미에서 지금 자료를

모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시간에 모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안삼환:** 모든 게 시간과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까지 나아가려면 여러 사람의 협업은 당연한 일이지만, 윤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서로 돕는 게 낫지 않겠는가, 참고문헌 정도라도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각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마지막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지요. 그것들을 모두 모아 정리한 다음 독일학지에 신기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이정희:** 우리의 계획상으로는 다음 달의 테마가 '독일학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 때 독일학 강의를 해 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다든가 커리큘럼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연구소에서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여러 독일학 관련 도서들은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고, 독일 문화원을 통해 도서목록을 입수해서 우리가 교재로 삼을 만한 것들을 10개 정도 뽑아 현재 독일에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나 책들이 있으시면 되도록 독일학 연구소로 수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이재황, 구명철)